

포천소식

Vol. 435
8월 August 2019

포천시 홍보대사 이봉주와 함께하는



2019 38포천 한탄강 마라톤대회

2019. 9. 21(토) 출발am9:30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일원(영북면 소재)
접수기간 : ~ 2019. 9. 2(월)





목 차

- 03 2019 38 포천 한탄강 마라톤 대회
- 04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전 관련 성명서
- 06 창수야 놀자
- 08 광릉숲길 열리다
- 09 어린이가 책 읽는 포천을 꿈꾸며
- 10 의회소식
- 11 법률/의학 칼럼
- 12 우리동네 기업체 소개
- 13 휴가철 가스 안전관리 및 진드기 예방 수칙
- 14 시정단신
- 15 알림사항
- 16 '포천시민의 노래' 노랫말(가사) 공모전

-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pcs21
-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spcs21.
- 트위터 twitter.com/lovepcs21
- 웹진 news.pocheon.go.kr

소통공감 포천소식

소통공감 '포천소식' 앱으로 확인하세요!

〈설치방법〉

웹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천소식' 검색 후 설치

소통공감 포천소식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소통공감 포천소식(news.pocheon.go.kr)은 우리시의 보도자료와 홍보영상, 시민기자단이 참여해 만들어낸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한, 포천시 대표 홍보매체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설치된, 소통공감 포천소식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지역으로 발행되는 소식지와 이메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신의 사정소식을 카카오톡, 카카오토리,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PC버전에서 '참여대장/원고하기')

카카오톡

story.kakao.com/ch/pcs21
"포천소식" 검색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spcs21
"포천소식" 검색, 메뉴서 "알려요"

트위터

twitter.com/lovepcs21
"포천소식" 검색, "알려요"

홍보전산과 홍보기획팀
☎ 031-538-3062

포천소식 원고 모집

포천소식은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
(수필, 시, 탐방문 등)를 보내주세요.
원고가 실리는 독자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보내실 곳
이메일 | newspcs21@naver.com
문의 | 포천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기획팀
☎031)538-3063

2019 38 포천 한탄강 마라톤 대회 개최

오는 9월 21일(토) '2019 38 포천 한탄강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2017년까지 군부대와 협조를 통해 '포천 38선 하프마라톤'으로 13회까지 이어진 대회이다.

올해는 특별히 대회 장소를 한탄강 지질공원 일원으로 옮긴다. 3~4월 대회 명칭 공모전을 시작으로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천시 대표 관광지인 한탄강의 특색을 살린 대규모 마라톤 행사로 준비했다.

포천시 홍보대사이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와 함께 뛸 수 있으며(10km), 팬 사인회도 마련했다.

포천 한탄강의 신비로운 협곡과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기암괴석의 주상절리 길, 하늘다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2019 38 포천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pocheonmarathod.com)를 통해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체육행정팀) ☎031)538-2076

시상내역



5Km, 10Km, Half (단, 등록선수 및 현장점수자는 시상에서 제외)

종 목	구 분	시상내역
5km	종합 남 / 여	1위 ~5위 상장, 트로피, 부상품
	연대별 남자 (20대~70대)	1위 ~5위 상장, 트로피, 부상품
10km	종합 남 / 여	1위 상금 30만원, 상장, 트로피 2위 상금 20만원, 상장, 트로피 3위 상금 10만원, 상장, 트로피 4위 상금 10만원, 상장, 트로피 5위 상금 10만원, 상장, 트로피
	연대별 남자 (20대~70대)	1위 ~10위 포천 특산품
	연대별 여자 (20대~70대)	1위 ~5위 포천 특산품
	연대별 여자 (20대~70대)	1위 ~5위 포천 특산품
Half	종합 남 / 여	1위 상금 50만원, 상장, 트로피 2위 상금 30만원, 상장, 트로피 3위 상금 20만원, 상장, 트로피 4위 상금 10만원, 상장, 트로피 5위 상금 10만원, 상장, 트로피
	연대별 남자 (20대~70대)	1위 ~10위 포천 특산품
	연대별 여자 (20대~70대)	1위 ~5위 포천 특산품
	연대별 여자 (20대~70대)	1위 ~5위 포천 특산품

- 종합 1~5위 시상은 인터임(들어온 순)으로 결정되며, 나머지 시상(연대별)은 넷타임(개인기록)으로 결정됩니다.
- 이번 대회는 개인 및 단체전, 컷플런 중복시상되지 않습니다.

컷플런 2인1조 (기록 합산순/ 팀원 모집에 제한없음)

구 분	순 위	시상내역
2인1조경기 (10km 코스 부문) 남자 + 여자 (이루어진 팀)	1위 ~ 5위	1위 상금 30만원 4위 상금 10만원 2위 상금 20만원 5위 상금 7만원 3위 상금 15만원

- 2인 1조 풀인시간을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이번대회는 개인전/컷플런(2인1조)/단체대항전(6인 1조)은 중복시상 되지않습니다.

6인 1조 대항전 (기록 합산순)

구 분	순 위	시상내역
6인1조경기 (Half코스 부문) 팀원중 여자 1명 포함	1위 ~ 5위	1위 상금 50만원 4위 상금 20만원 2위 상금 40만원 5위 상금 10만원 3위 상금 30만원

- 6인 1조 풀인시간 합산하여 순위 결정(팀원중 한명이 여자가 포함되어야합니다.)
- 이번대회는 개인전/컷플런(2인1조)/단체대항전(6인 1조)은 중복시상 되지않습니다.



코스경로

- ▶ **하프코스**: 한탄강지질공원주차장 → 장독대마을입구 → 관인중리초등학교입구 → 창수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입구(반환점)
- ▶ **10Km코스**: 한탄강지질공원주차장 → 장독대마을입구 → 관인중리초등학교입구(반환점)
- ▶ **5Km코스**: 한탄강지질공원주차장 → 장독대마을입구(반환점)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전 관련 성명서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을 의정부시는 함께 보존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10년 유네스코에서 숲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있는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접경 지역인 5km 반경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포천시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생태계 보고(寶庫)인 국립수목원은 식물 6,873종, 동물 4,376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늘다람쥐, 크낙새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광릉요강꽃 등 14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슴벌레붙이는 전 세계에서 광릉숲에서만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포천(抱川)은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순수공공재로 바라 보고 명품 브랜드로 가치를 보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포천시는 인근 시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청정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립 수목원을 600년 동안 보존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보면 공사를 진행했을 시 연간 환경기준 초과(기준 15ug/m³)로 나타나고, 운영을 할 때도 20년 동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역시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기준 15ug/m³)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은 “배경농도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각장 운영이나 공사를 할 때 농도가 조금 영향을 주긴 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은 ‘어차피 오염된 공기에 조금 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된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안일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피해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우리 주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의정부시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립 수목원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우리 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석탄발전소 준공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인근 지역 지자체와 주민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 식인 소각장 이전 건립을 하고 있어 포천시민은 1년 365일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하여 삶의 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에 보장된

우리 포천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보존을 위해서 관리 주체인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의무를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인근 지자체와 시민이 반대하는 행정을 효율 때문에 추진하고 소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후 반대 의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한다. 우리 시는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계획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를 시민들과 함께 주장할 것이다. 우리 시는 의정부시가 우선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양주, 포천 지자체와 협의 후 이전 건립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요구한다.

첫째, 의정부시는 자일동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의정부시는 포천 양주 의정부 시민의 건강권, 안전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당장 중단하고 슬기로운 해안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의정부시는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 보존과 우리 시의 청정지역 명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는데 노력하라!

넷째,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 건립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국립수목원의 국제적 가치를 지켜서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라!

우리 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천시민은 국내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장외투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지킬 것이며, 우리 시는 포천 시민과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을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창수 蒼水야놀자! 창수장터



소박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장터

관내 농특산물 저렴하게 사고팔 수 있어.

마을활동가로 지내온 3년.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포천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게 있나?' 늘 관심을 기울였다. 그럴 때마다 항상 피식 웃게 하는 것들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 우수사례를 보면 항상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핵심을 짚는 네이밍이야말로 사업의 시작이자 끝을 함께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면에서 '창수야 놀자'는 잘 지은 이름이다. 그곳에 가면 뭔가 재미난 것이 있고 왠지저쩍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다.

'창수야 놀자'는 2017년 창수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겼다. 교통이 불편해 멀리 떨어진 시장이나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것이었다. 생필품이나 농축산물을 쉽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배려에서 착안했다.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든 '창수야 놀자'는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이전에는 지역 주민 중심의 접근성 확보와 특산물 홍보가 중심이었다. 올해부터는 누구나 농특산물을 사고팔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관광객과 포천시 전역의 주민이 놀러 올 수 있는 장터를 만든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창수면 보장초등학교로 발길을 옮기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뚝 부러지게 서 있는 A형 간판이다. 오후 3시가 넘어 한적하리라 생각했지만, 장터를 드나드는 차들이 분주했다.



시민기자 심현보
farejona@gmail.com

영북면에 거주하며 도시재생, 청년, 공동체, 축제, 문화콘텐츠, 자원조사, 일을 하고 있는 시민활동가입니다.



장터에 들어서자 지역에서 난 곡물로 튀밥을 튀겨주는 빵튀기 차량이 반겨준다. 무대에서는 막걸리를 한잔하신 듯 흥겨운 노랫가락과 춤사위를 뽐내는 두 어르신께서 분위기를 띄운다. 이곳이 장터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겠다는 듯 잘 정리된 몽골 텐트 아래에서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이고~ 더운데 고생이 많아 어떡해~!!”

정중하게 촬영 협조를 구하고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이 어두워진다. 누군가 손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는 게 아닌가. 여름 한낮 더위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내 모습이 가여워 보였나? 원래 알던 사이인 양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땀을 닦아준다. 순간 당황스럽고 약간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챙겨 주고 싶어 하는 아주머니의 배려였다. 시골 장터의 정이다.

장터를 둘러보니 대부분 포천에서 난 특산품과 가공품인데도 가격이 저렴하다. 인터넷에서 파는 똑같은 상품을 작게는 5% 부터 많게는 그냥 주다시피 한다 ‘이분들이 직접 훔 만지고 땀 흘려 준비했는데 남기지 못하시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당장 돈 벌기보다 창수면과 포천시에 이런 장터가 많이 생겨서 지역도 살고 주민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이다.

물물교환의 목적만 있는 일반 시장과는 확실히 다르다. 무엇보다 “먼 데까지 일부러 외준 게 고맙잖아요”라고 하신 말씀에 오히려 내가 더 고마울 지경이었다. 정성스레 준비한 식자재와 가공품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매자는 ‘연이 스토리 다육이’ 사장님이다. 이름이 특이하여 물어보니 남다른 사연이 있다.

포천을 고향으로 20여 년 만에 귀향한 연이 스토리 대표님 금지옥엽 아끼는 딸이 21살에 난치병에 걸려 병마와 싸우고 있다. 딸이 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키운 다육식물을 6개에 만 원에 판매했다. 혹시 후원이 필요 하진 않느냐는 질문에 “후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라 말씀하신다. 대표님의 목소리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배어있다.

‘창수야 놀자’는 지역 주민이 모여 정을 나누고 사람을 사귀는 전통시장의 문화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장터다. 소박하지만 사람 냄새가 난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테마에 걸맞은 체험행사나 문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해 아쉽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은 고민을 해나간다면 포천의 대표 장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장터는 총 10회 중 3회차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입장료나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 운영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금은 받는다.

※창수야 놀자(둘째, 넷째 토요일)

🏠 주 소 :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115
(포천시공동체 지원센터)

포천의 프리마켓

현재 포천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프리마켓은 총 다섯 곳이다. 창수야 놀자(창수면,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고모 프리마켓(고모리, 주말 상시), 산정 프리마켓(영북면, 주말 상시), 일동 자렛(일동면, 주말 상시 예정), 포마켓(송우리, 둘째, 넷째 토요일) 등이다.

다양한 프리마켓을 통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과 로컬푸드의 판로가 확대되길 바란다. 나아가 포천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광릉숲길 열리다

봉선사에서 국립수목원까지
3km 걸으며 광릉숲을 느끼자!



※광릉숲길 정보

- 봉선사와 국립수목원 사이의 거리는 3km, 쉬엄쉬엄 1시간 소요
- 광릉숲길과 더불어 광릉, 봉선사, 국립수목원을 연계하는 관광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 대중교통 : 축석령에서 21번 시내버스 이용. - 자가용 주차요금 : 국립수목원 소형 3000원, 경차 1500원 - 봉선사 입구 무료주차장 있음.

광릉숲길이 열렸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길만 있었을 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었다. 광릉숲길은 광릉숲을 관통하는 도로와 하천을 따라 지난 5월 25일 조성되었다.

봉선사에서 국립수목원까지 3km 거리다.

광릉숲길 걷기는 국립수목원 또는 봉선사 입구에서 시작한다. 남양주 광릉 내에서는 봉선사 입구까지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있고 의정부역에서는 축석령과 국립수목원을 경유하는 21번 시내버스가 있다. 햇살이 따갑게 내려오는 여름날 광릉숲길을 찾았다.

광릉숲길은 숲의 터널로 이어졌다.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에는 전나무숲길이 있다. 국립수목원 전나무숲길은 월정사와 내소사의 전나무숲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길이다. 그밖에 졸참나무, 총참나무, 신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도열해 더위는 사라지고 향긋한 나무 냄새, 풀냄새가 전해져 오는 숲길이 이어진다.

또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반가운 것은 나무와 꽃에 일일이 이름표와 간단한 식물의 특징을 붙여 놓았다는 점이다.

<전나무 - 소나무과, 동아시아 원산의 상록 침엽교목으로 4~5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익는다>와 같이.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식물도 이름을 보면서 얼굴을 익히니 친근감이 더해졌다.

산책로 옆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소음이 그리 크게 들리지 않은 것은 숲의 방음장치 때문일까. 어쩔 처음 걸어보는 이 길이 너무 즐겁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조선 시대 세조가 잠든 광릉의 부속림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온 영역이 아니던가.

잠시 후에는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얼굴을 내민 옛된 애기똥풀을 만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애기똥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광릉숲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알리고자 조성한 광릉숲 야생화 명소다. 산책로의 환경과 경관에 따라 5개의 주제 정원(숲속 정원, 돌담 정원, 습지 정원, 숲터 정원, 그늘 정원)을 꾸며 놓은 것이다. 산수국, 큰까치수염, 뽕나무 등 이름도 낯선 식물들이 정감 있게 다가오니 숲의 정원은 숨은 매력으로 넘쳐났다.

산책로를 걷다 보니 도로 건너편에 세조와 정희왕후가 잠든 광릉 입구가 나온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왕릉까지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왕릉길에서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 소리를 따라 잠시 문화유산 해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다.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죽기 전에는 참회했을까 하는 의문도 풀어보고.

광릉 입구를 지나자 남양주와 포천의 경계가 나온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조성된 광릉숲길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숲의 내음이 이렇게 코를 자극하는 예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데크 산책로



책 그림을 보는 듯



애기똥풀



시민기자 서상경

skyung0512@naver.com

영종면에서 지혜하원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의 산과 도보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 네이버 어담의 블로그(2017년 7월) 선정.



포천시
POCHON



어린이가 책 읽는 포천을 꿈꾸며

김성희(포천시 호병로)

가산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이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 한다.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사서가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독서연계프로그램, 연극인 작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 매주 토요일 진행될 거라고 한다.
'어린이가 책 읽는 포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다.

지난 주말에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 도서관에 갔을 때 일이다. 한 아이 엄마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붙잡고 "숫, 숫" 하면서 주의를 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 책, 저 책 꺼내 보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그러다가 다른 책 펼쳐 바닥에 내려놓고 철퍼덕 앉아서 약 10분 정도 보다가금세 흥미를 잃고 이내 다른 책을 꺼내곤 했다. 결국 아이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 보았던 도서관이 떠올랐다. 미국의 어린이 도서관은 정숙해야 하는 곳이 아닌,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와 실컷 책과 놀다 나가는 공간이었다.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으며 조용해야 하는 책임도 없었고, 맛있는과자를 사 먹어도 되는 곳이었다. 물론 방문 시설이 된 곳에서는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해 놓았고, 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다가도 문득문득 저 너머에서 진지하게 책을 읽는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득하게 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독서 지도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는 시간을 열고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빠져들었다. 아! 이게 참 좋은 방식이었다. 천방지축 뛰놀던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잡게 만들어 주니까. 이번에 가산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즐겁게 놀면서 점차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독서습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포천시립도서관. 2019년 여름 방학 프로그램 운영 ●



포천시 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엄마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 '여름방학 독서교실', '아동독서미술', '독서요리교실', '영어동화교실' 등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 '아이스크림 초콜릿 만들기', '디폼블럭 만들기', '비즈컵받침 만들기', '텀블러 만들기' 등도 제공된다.

이외 부대행사로 '손인형극', '원화 전시', '민화 전시', '영화 상영', '유아 책놀이터', '과학 놀이터', '도서관 무지개 놀이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개인 부담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수강신청은 포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서관정책과(중앙도서관팀) ☎031)538-3913



의회 소식

포천시의회, 공청회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 7월 6일 오후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용춘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시, 양주시, 자일동, 민락2지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가 열린 금오초등학교 체육관과 변에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숨 쉬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여러 장 내걸렸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주민들은 소각장 건설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조용춘 의장은 결의안 낭독을 통해 “자일동 소각장 이전은 포천시 브랜드 가치 저하와 포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의 환경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소각장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포천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이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우한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장은 “국가가 국립수목원의 생물권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의정부시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소각장 이전을 취소할 때까지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지역 주민들은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건설은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법률칼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 인 석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법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채무이행 청구, 계약 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 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 통지를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이외에는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 당시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과 발송 일자, 송·수신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반드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에 답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우편은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작성해 보내는 문서여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도 아닙니다.

가령,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내용증명우편에 답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간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 송달추정에 관하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건강칼럼 방아쇠 수지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표 혜 나

‘방아쇠 수지’란 손가락을 굽힐 때 사용되는 힘줄이 방해받아 걸리면서 생기며, 손가락을 굽혔다가 잘 펴지지 않고 걸리듯이 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마찰이나 통증을 느껴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해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이 병은 흔한 질환으로 40~60대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보통 3, 4번째 손가락에 많이 발생하며 엄지손가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쥐고 있게 되면 손바닥 마찰이 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통풍, 결절종 때문에 이차성으로 생기는 예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인 힘줄이 걸렸다가 풀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소리, 통증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쪽 손등뼈 뼈끝 부위를 눌러보면 압통이 느껴집니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보면 힘줄 주변의 비대나 부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바닥 쪽에 있는 피가 두꺼워져서, 이 피 아래로 지나가는 힘줄이 걸려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도 하고 소염진통제만 복용해도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건막 내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지속해서 재발하거나 증상이 9~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손가락이 아예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으며 두꺼워진 피를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우리동네 기업체 소개

전천후 수중촬영 세트장 '포프라자'

'포프라자'(대표 김병국)는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수중 전문 촬영 세트장이다. 1990년 서울 충무로에서 광고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출발했다. 2008년 수중촬영 스튜디오라는 당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 영역에 과감한 사업 투자를 결정했다.

2008년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영화, 드라마, CF, 뮤직 비디오 등 다양한 수중 장면이 포프라자에서 촬영됐다. 최근 드라마 KBS '단 하나의 사랑', '왜 그래 풍상씨', MBC '용왕님 보우하사', SBS '녹두꽃', '황후의 품격', tvN '아스달 연대기', '어비스', OCN '빙의' 등 해양 및 수중 장면의 약 80%를 소화해 냈다.

또한, 2016년에는 지름 16m, 깊이 5m의 야외 원형 수중촬영 세트장을 완성해 다양한 수중촬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야외 대형수조는 촬영이 없는 시간대에 항시 개방해 경기소방청, 경기도 수상안전 교육, 동호회 사진 촬영대회, 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바다의 생태계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수 풀장은 다양한 레저교육의 산실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240명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도 보유하고 있다. 가구, 인테리어 소품, 모델 촬영 등 다양한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활용된다.



오픈형 스튜디오까지 갖추어 전문 스튜디오 촬영은 물론, 아마추어, 동호회도 활용할 수 있어 영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포프라자의 김병국 대표는 육상, 수중을 아우르는 포천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상업사진 연구소로 출발한 포프라자는 1995년 디자인, 마케팅, 프린팅 부서 신설하고 1996년 포천시 신읍동에 제2 촬영 세트장을 신축해 서울촬영실과 포천 제2 촬영장을 통한 종합업무 대형체제를 구축했다. 2001년 디지털 촬영을 시작하여 2002년 ㈜포프라자로 법인 등록하고 2004년 지금의 어룡동에 종합촬영 세트장을 신축해 2005년 이전했다. 2008년 수조 및 수중촬영 세트를 구축하고 2016년 야외 원형 수중 세트장을 오픈했다. 포프라자는 포천 시민의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우뚝 서고자 24시간 영업 중이다.

포프라자 시설

실내 스튜디오

- A 세트:호리존 스튜디오(약 160평) / B 세트:자연광 스튜디오(약 80평)

수중스튜디오

- 실내(전면 대형 투명창) / 실외(광폭 원형 스튜디오)

주 소 : 포천시 어룡동 688-7(☎031)533-7111)





휴가철 가스안전관리

진드기 예방수칙



진드기가 양성하게 활동함에 따라 SFTS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여름이 왔다. 전국적으로 진드기에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야외활동 시 이에 따른 예방이 필요하다.

먼저 SFTS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4~11월에 많이 발생한다. 야생 진드기에 물린다고 무조건 SFTS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 고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포천시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보건소, 각 읍/면/동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진드기 기피제를 비치하여 배부하고 있다.

진드기는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작업복과 외출복을 구분하여 입고
- ▶ 농작업 때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 밑단은 양말 안으로 놓아서 입고
- ▶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 두지 않아야 하며
- ▶ 농작업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는 등의 행동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보건소(보건사업과) ☎031)538-3687

가스밸브를 안 잠근거 같아요!

휴가철 대비
출발 전에는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를 떠나기 전

가스연소기의 **중간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 후** 출발합니다.

사용전 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 휴가 마치고 온 후

가스냄새(양파 또는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킵니다.

평소 자율점검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총 점검의 날**입니다.

◆ 가스시설 사용 전

밸브를 열고 **비눗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사용합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추진

- 포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포천시는 7월 16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TF팀, 외부기관 및 자문단 등과 함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TF팀 단장인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김우석 포천시 경기도 의회 의원, 유광혁 동두천 경기도 의회 의원, 손종현 맥쿼리코리아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합동회의는 네이버가 제시한 부지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TF팀의 자체 회의와 토론을 거쳐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고 8월 중순까지 네이버에 사업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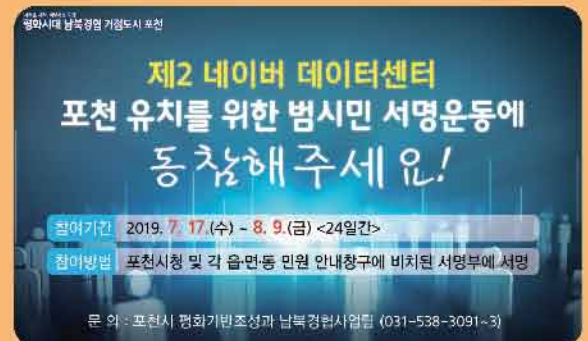
포천시민 포천아트벨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포천시민 및 포천시 소재 주둔 군인·의경
포천아트벨리 무료 입장 -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 7월 3일부터 포천시민, 포천시 소재 주둔 군부대 및 경찰서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하사 이하 사병)·의경들이 포천아트벨리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은 별도의 탑승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포천아트벨리 무료입장은 접경지역 시민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민들에게 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포천시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와 포천시민들의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포천시 소재 주둔 군인·의경들이 복무기간 중에 포천아트벨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포천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자 추진한다고 한다.

한편, 포천아트벨리는 2009년 10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290여 만명이 방문한 포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아트벨리 내에는 천주호 호수, 조각공원, 하늘공원, 천문과학관 등 볼거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주말에는 포천아트벨리 산마루공연장에서 댄스, 밴드, 재즈, 힐링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포천아트벨리 무료입장을 위해서는 포천시민은 본인이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군장병 및 의경의 경우 휴가증, 외출증 등에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경찰서 임이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 용자지원 협약기관 확대 운영

- 시 행 일 : 2019. 7. 4~
- 지원대상 : 포천시 소상공인(사치·향락·임대·투기 업종 제외)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 협약기관 : 국민은행(포천지점, 송우종합금융센터), 기업은행(포천, 송우지점), NH농협은행(포천, 송우지점), 신한은행포천금융센터, 우리은행(포천, 송우지점)


암검진 6종 폐암 추가 확대

- 올해 암 검진 대상 : 흡수년도 출생자
- 암 종류별 검진기준 :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 만 50세 이상, 폐암은 만 54~74세 중 해당자
- 자세한 사항 문의 : 보건사업과(진료검진팀) ☎031)538-36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및 억제시설 관련기준 강화(2019.7.16.부터 시행)

- 생활주변의 비산먼지를 발생원으로부터 저감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되고 억제기준이 강화됩니다. 확대되는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외부 도장공사(2021.1.1.부터 시행), 연면적 1000㎡이상의 대수선(리모델링)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입니다.
-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비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문의 : 환경지도과(환경허가팀) ☎031)538-3287

반월아트홀 공연 안내



보물섬
Treasure Island
2019.08.20(화) 19:30
반월아트홀 대극장 전석무료
관람권명 : 전체관람권
공연문의 : 031-540-6213~4



동물원에 여행가자
2019.8.22(목) 19:30 반월아트홀 대극장
전석 3만원 / 유료회원 2만원 / 단체할인 20% 이상
주최 : 한국관광공사 주관 : 포천시관광진흥위원회 후원 : 포천시관광진흥위원회



반월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8월 프로그램
8.27(화) PM7:30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
예술로양상블
국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김영태와 예술감독 김민준이, 단원 40여명이 함께 하는, 교향악의 거장 프랑크와 베토벤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교향곡 40번'의 연주회를 소개합니다.
가시건반악기 연주와 함께 있는 교향악도, 단원 10명 관현악 관악기 연주와 함께 하는 '가시건반악기 연주회'를 소개합니다.
대중을 교향악에 이르게 하는 불독 앙투안 프랑코의 주제는 아름다운 교향악을 만들어 주셨다
연출 : 단국대학교 사단법인 교향악단 예술감독 김민준
반월아트홀 대극장 (031)540-6213~4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포천시민의 노래」 노랫말(가사) 공모전

2019.7.25.(목) ~ 8.23.(금) 30일간

공모주제 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소재로 한 창작 노랫말
→ 포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노랫말

공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

공모형식 1절과 2절로 구성된 3분 이내 분량의 창작 노랫말

공모요강

- 공모기간 : 2019. 7. 25.(목) ~ 8. 23(금) 3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약서
- 응모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E-mail(ezpark@korea.kr)
※ 신청서류 :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및 팝업창'란 게재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홍보전산과

시상내용

대상 : 150만원 / 최우수상 : 100만원 / 우수상 : 50만원



포천시

문의 : 포천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기획팀 031-538-3063